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6호 [루계 제25024호] 주제 104 (2015)년 9월 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8월 19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지도력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이께서는 북한인의 콘볼퍼해상항을 통보하시고 그 후파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취할데 대해 지시하시었다.

서공보도문이 발표된것은 첩에 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대한 전환적기로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께서는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이께서는 라신시의 콘볼퍼해상항을 통보하시고 그 후파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취할데 대해 지시하시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피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의 UPI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도이칠란드의 데이 케어통신, 에리트레의 사다 열 발라드 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 기네 국제, 국제방송,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뉴스페이지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수협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 위대성을 칭송한 시집 로씨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한 시집 《희망의 서풍》이 조국 해방 70년을 맞으며 로씨야에서 출판되었다. 시집발행식이 8월 21일 모스크바의 세계문명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은 《나르스》전러시아사회단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보보코프, 로씨야자유민주당 국제부 부부장 겐나지 아르제예브를 비롯한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

하였으며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저자인 로씨야작가동맹 성원 류드밀라 아르제예바는 이번 출판행사를 기념한 시집을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과 영도의 혁명적, 숭고한 덕망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집 《영원한 희망의 태양》의 연속편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일관되

어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데에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최근년간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져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고 시집 《희망의 서풍》이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고무하고 두 나라사이의 문화적 등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거리표식비 제막 및 김일성공원명명식

### 수 리 아 에 서 진 행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 조국해방 70주년을 즈음하여 수리야 디마스키 카르 푸싸구역에 김일성거리표식비가 건립되고 김일성공원이 새로 꾸러졌다. 옥부에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영접하고 《김일성거리》라고 새긴 표식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1912년 4월 15일-1994년 7월 8일)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수리아인민들의 친근한 벗이시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임하시었으며 조국과 인민, 나라와 민족애를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3차), 로력영웅, 대훈수칭호와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으셨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주제사상(자기 유포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사상)과 신군사상(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울에 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었으며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시련을 위하여 투쟁하시었고 수리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거리의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주년을 즈음하여 2002년 4월 10일 개통되었다. 김일성거리표식비 제막 및 김일성공원명명식이 8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수리아아랍사회현실태 위원장인 아랍사회부총장 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 아랍사회부총장 디마스키위원회 비서, 수리아외무 및 이주인성 1부상, 국방성 부상, 혁명청년동맹 위원장, 디마스키도 부지사, 알 바이스신문사 총서기 등 수리아의 정당, 정부, 군부, 단체, 출판보도기관 인사들과 군중들 그리고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혁명전선단체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수리아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정명호 우리 나라 혁명전선에서는 디마스키의 중심구역에 위치한 김일성거리 표식비가 건립되고 김일성공원이 새로 꾸러졌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수리아인민의 다함없는 호모심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호조관계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

하려는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파이루즈 무사 아랍사회부총장 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은 위인의 존함을 모신 거리표식비와 공원이 건립되고 명명된것은 하세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과 김일성주석께서 기초를 마련해주시고 바사르데통령이 계승해나가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공고성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이 관계는 미국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공종의 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얼마전 조선을 방문하여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영웅인 영도인 김일성이 앞으로 계속 진보와 번영만을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인민이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는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해주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수리아지도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한다.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표식비가 제막되었다. 참가자들은 김일성거리표식비와

김일성공원을 돌아보았다. 위 두 및 이주인성 1부상은 김일성주석은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몰입한것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수리아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의 존함과 업적은 세대를 이어가며 수리아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수리아와 조선사이의 관계는 공동의 원수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맺어진 관계로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 국방성 부상은 김일성주석각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가 호모하며 따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수리아에 주석의 존함을 모신 거리와 공원이 있다는것자체가 더없는 자랑이며 두 나라사이의 굳건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아랍사회부총장 디마스키위원회 비서는 김일성주석각하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치실력으로 조선을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하고 김일성거리와 김일성공원을 보다 훌륭히 꾸리고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백두의 녀과 기상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 청춘 다리가 훌륭히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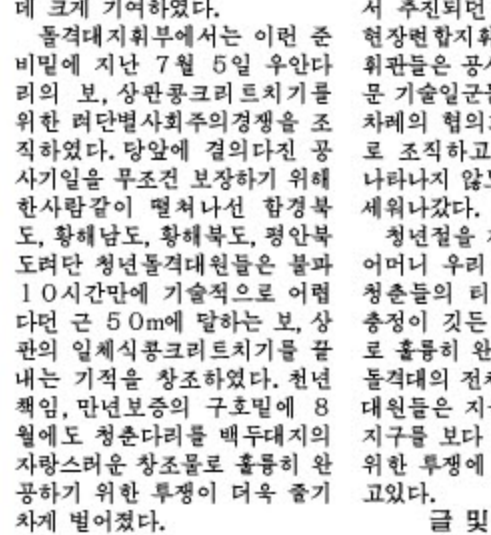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북부청년청년들끼리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1호발전소건설현장에 들어가 백수침에 달하는 청춘다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현장명합지휘부에서는 1호 발전소건설공사와 동시에 연제 지구를 사회주의적으로 전환시킬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달려있는 북부청년청년들끼리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다리를 건설을 맡아 청춘의 숨결과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콩크리트다

리를 처음 건설해보는 조건에서 시공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시공공정별공사일정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웠다. 특히 서로의 창조적체력을 합쳐 다리보와 상판공사를 조립식으로 가 아니라 일체식콩크리트기로 진행하여 공사일정을 한달이나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었다. 그에 기초하여 다리보와 상판공사를 콩크리트기와 다리보 및 상판의 절근가공, 휘체제작을 떠안

고 전문화하고 동시에 추진하여 높은 공사속도를 보였었다. 황해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들끼리 10개의 다리보와 상판공사를 불과 보를 남긴한 기간에 해체적 진척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려단 청년들끼리들은 불과 10시간만에 기술적으로 어떤 다리보 50m에 달하는 보, 상판의 일체식콩크리트기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청년 책임, 만민보존의 구호에 8월에도 청춘다리를 백두대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줄기차게 벌어졌다.



### 우리 식의 강병이종자피복제 개발도입

####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에서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에서 우리 식의 강병이종자피복제 개발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적은 지출로 현존생산상태를 리용하여 강병이종자피복제를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올해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버드포함형영양제개발에 이어 강병이종자피복제를 또 다시 연구개발한것은 자랑할 로력적실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떨쳐나서려는 이곳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정신과 창조적열정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화려한사(사)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정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 개발된 강병이종자피복제는 살충작용이 비교적 오래되고 농작물의 초기생육을 촉진시킬수 있는 영양원, 제초제, 담배 등을 함유한 약제이다. 이 약제는 가루로 된 수화제 형태로써 200g이 넘는 대형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에서 우리 식의 강병이종자피복제 개발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적은 지출로 현존생산상태를 리용하여 강병이종자피복제를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올해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버드포함형영양제개발에 이어 강병이종자피복제를 또 다시 연구개발한것은 자랑할 로력적실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떨쳐나서려는 이곳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정신과 창조적열정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화려한사(사)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정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 개발된 강병이종자피복제는 살충작용이 비교적 오래되고 농작물의 초기생육을 촉진시킬수 있는 영양원, 제초제, 담배 등을 함유한 약제이다. 이 약제는 가루로 된 수화제 형태로써 200g이 넘는 대형

유용원, 박진명, 차광철, 김순철, 김성현, 리정국동무들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개척자의 긍지와 안고 두터운, 기술적인 힘있게 강병이종자피복제 연구에서 나서서 과학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들은 피복제의 조성처방과 제조방법은 물론 조성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종자의 피복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하였다. 그 기세드높이 새로운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종자 피복제의 성분이 씨뿌리후 비교적 오랜 기간 농작물에 존재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있으며 개발한 종자피복제의 적용기술도 확립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지난해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지도밑에 연구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해 애국의 더 큰 피를 흘리며 수년간에 걸쳐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공화과학자이며 후보원사 포수 박사인 소장 김지영동무는 약속해준공과를 받지 않으면서도 높고 인정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 강병이종자피복제를 개발하도록 연구집단을 이끌었다.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끼리내망라되어 연구사업을 하는 나라

본사기자 오철훈

## 라선시의 피해지구 주민들을 적극 지원

###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 인민들이 많은 지원물자를 지난 1일 라선시의 콘볼퍼해지역에 보내주었다. 지난 8월말 라선시 선봉지구의 주민들이 무더기비에 의한 콘볼퍼 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접한 함경북도 인민들은 식량과 의복류, 가정용품을 비롯한 수백종에 달하는 많은 량의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즉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피해정황을 구체적으로 로해하는 한편 콘볼퍼해 하부해결하기고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계념일꾼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다는 소식이 접한 도의 책임일꾼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라선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한사함 없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인민보안국, 도급장관리국, 도무역관리국을 비롯한 도급단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원사업에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치였다. 도급단위원들의 당, 행정책임일꾼을 비롯한 많은 일꾼들이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

을 지원해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험하면서 신심과 탁발에 넘쳐있는 기간에 공장과 기업소, 거리와 마을을 더 멋있게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한 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특파기자 리은남 (현지에서 전송)

## 총전보다 2.5 배에 달하는 조광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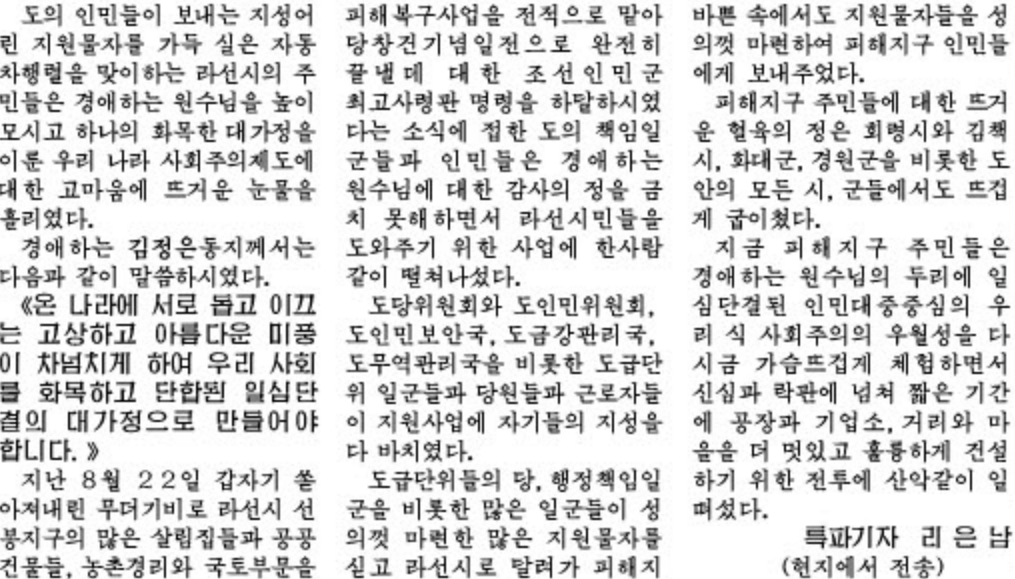
###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 망가통의 통용을 세차례 올리고있다. 원추형망가통의 로동계급은 몇 번은 실제 결전하던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건설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의 망가통을 보장함으로 총전 처리 비어 2.5 배에 달하는 조광을 처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1000 마력원추형파쇄기 로동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원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원추형망가통에서는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 정장운영을 철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리의 하나를 틀어쥐고 파쇄기의 망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원회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철정생산성을 다그치도록 화성원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원추형망가통, 행정책임일꾼들은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 정장운영을 철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리의 하나를 틀어쥐고 파쇄기의 망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원회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철정생산성을 다그치도록 화성원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원추형망가통, 행정책임일꾼들은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 정장운영을 철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리의 하나를 틀어쥐고 파쇄기의 망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원회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철정생산성을 다그치도록 화성원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원추형망가통, 행정책임일꾼들은 3호 대형원추형파쇄기 정장운영을 철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리의 하나를 틀어쥐고 파쇄기의 망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원회일꾼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철정생산성을 다그치도록 화성원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수 있게 조광과 박트선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질 좋은 조광들을 채취하여 파쇄장에 보내주었다. 지난 몇달동안에만도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탐구한 새로운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10만신대발파를 비롯하여 5만신, 3만신발파들을 수

심시켜나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하여 질 좋은 조광들을 파쇄장에 보내주어 원추형망가통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있다. 지금 무산의 로동계급은 천수백m에 달하는 비터처리용벨트 콘베어건설을 비롯하여 철정생산성을 수백만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파급히 벌려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 1호 대형원추형파쇄기에서 -

# 신념교양을 강화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락관이 차넘치게 하자

## 우리에게는 승리의 법칙이 있다

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이어 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인민도 가질 수 없는 승리의 법칙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 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운명은 말 그대로 노래의 비장한 처지였다. 당국노의 실음속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국권도 영토도 자전도, 자기의 말과 이름까지도 빼앗기고 집집의 밭고름마저 갈양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었다. 조선독립을 쫓으며 온 민족이 떨쳐일어나 3.1인민봉기도 일으키고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미국땅에서 배를 갈라 피를 뿌리기도 하였으나 과연 항국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일제기 일제의 가혹한 총정벌에서 신음하는 겨례의 운명을 구원하자면 자기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주체적건국위업의 초행길을 헤치신 위대한 수령님, 10대의 시절에 벌써 총대중시의 혁명원리를 밝히신 그이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것은 총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적 주력군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얼마나 존엄한 항일의 나날이었는지, 백두산 줄기줄기마다에,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아시아의

《맹주》로 날뛰던 강도 일제를 때려눕히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 무손 말로 다 칭송할 수 있나.

8월 15일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시원을 열어놓고 삼천리강산에 혁명의 새물을 안아온데만 있지 않다. 위대한 수령, 탁월한 명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이 리송하지 못할 강성이 이 세상에 없다는 혁명승리의 전력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 냈는데 또 하나의 심원한 의의가 있다.

자주성을 위한 장구한 투쟁의 나날 우리 인민이 피로써 찾은 이 승리의 법칙은 준엄한 전과와 나날에 뚜렷이 증명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역사상 류례를 찾아볼 수 없이 가렬치절 한 혁명전쟁이었다. 남조선피괴물들을 사육하여 불의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15개 추종 국가군대와 일본군주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장비수준에서 대미도 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 세계가 우려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해방된지 5년, 국가가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던 우리나라,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의 괴수이며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주적들이 맞섰다는 것도 영웅적 장군이 없었어도 이 싸움속 승리를 이룩한 것은 세계전쟁사의 전례를 깨트린 군사적적이었다.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 뛰어난 명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셨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세계를 진강시키는 전승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전후

60여년의 나날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의 법칙이었다.

1960년대의 《투에블로》호 사건과 1970년대의 환문점 사건, 1990년대의 광란적인 군사적압박과 심리모략전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은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기게 강행되었던가.

이 땅에 인축축발의 침에 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조국수호성전의 진두에는 언제나 빨치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서셨다. 그이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전략, 무비의 당백과 배정에 의하여 원수들의 온갖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절름 절름 마다 짓부셔지고 백승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었다.

언제까지 이젠 쏘련의 국방망이였던 아조브린수는 자기 나라

의 정제, 사회계인사들과 모스크바공관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날까지 반세기 넘도록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대결해 오고 있다. 그때 역사가 보기 드문 이 지극적인 군사적압박과 심리모략전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은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기게 강행되었던가. 그 어떤 악랄하게 조진 이 언젠 한 때 한적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역사가 세계적인 명장들을 꼽을 것을 위한다면 나는 서슴 없이 그 맨 앞자리에 조선의 김정일장군을 내세울 것이다.》

위대한 명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주제지었다. 100년사가 증명하는 승리의 법칙이다. 신군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오늘의 빨치산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세기를 이어 풀없이 빛을 뿌리고 있다.

백두의 위업을 신군의 총대로 끝까지 완성시킬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 있는 판문점과 개성공포소에 까지 서슴없이 나가서 병사들에게 기묘한 전법을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당백과 뛰어난 명군술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대대로 탁월한 명장들을 전두에 높이 모시고 백승의 역사를 빛내여가는 조선혁명은 최후 승리의 명마루에 거머쥔 공화국기를 휘날리고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참신한 도서선전과 놀아진 실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주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 있다.

신념교양을 강화하자면 그 형식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신념교양에서 형식을 새롭게 탐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형식의 신념교양방법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군출판물보급

소보급원들이 진행되는 도서선전의 형식이 새로워진 것이다.

군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속에 들어간 군당위원회 비서 교체원동부는 도서선전형식을 새롭게 하여 신념교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신념의 귀감자료들이 수록된 도서를 비롯하여 신념교양내용의 도서들을 잘 선정하는 것과 함께 도서선전의 형식도 새롭게 특색있게 하기 위한 좋은 안들이 나왔다.

실제로 종전의 도서선전형식은 달리 노래와 특효요약과 적극 리용하여 도서선전의 사상을 예술성을 높일때 대한 혁신적인 안을 들 수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소강 최명희, 당세포비서 조광해동무들은 보급원들과 함께 신념교양 주제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큰 공을 냈다.

그들은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며 형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같은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 과정에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었다. 《가리리 배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노래와 특효요약을 비롯한 예술 형상을 잘 배합하여 진행되는 그들의 참신한 도서선전은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리 종 석

군당위원회에서는 도서선전을 통한 신념교양을 들끓는 현상에서 더욱 활발히 벌러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직하신 혁명적신념을 수록한 도서의 내용을 풍부한 감정적소유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념의 강자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렇듯 도서선전을 통한 신념교양에서 그 형식을 혁신하는데 실효는 대단했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총공격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해 갔다.

그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영웅전투를 힘있게 벌려오며 군수적으로도 포공사구, 군문화위생개선보수공사, 미배우와 군중합류지전건설, 살림집건설 등 많은 전투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뜻이 나서기 위한 총공격을 다스리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은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여 그 실효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신념의 글밭을 가슴에 새기며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 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 구호문화보존교양실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 실천은 신념의 강자들을 키우는 과정

**수 안 군 당 위 원 회 사 업 에 서**

가시지 못한다. 수안청년 1호 발전소건설로 무척 힘겨웠던지라 일군들조차 선뜻 응해나서지 못하였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으로 선도해야 할 일군들에게 신념의 태도를 세워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군당책임일군은 절실하게 호소하였다. 군이 살아나갈 길은 우리들이 밝혀내도록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수출을 자체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제철을 믿고 세운 온 더 좋은 레일을 개척해나갔었다는 결심과 각오만 투철하면 아무리 난관이 커도 못해낼 일이 없다.

군당책임일군은 말로만 사상사업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바지개임을 걸어올리고 현 지단사와 길에 나섰다. 군당일군들의 기술자들이 떠났다. 산세협한 길을 수백리나 걸고 로인일파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한편서 그들은 드디어 발전소 위치를 확정하고 침수될 면적이며 세대수 등을 구체적으로

크기의 발전소건설은 식은죽먹기로 생각하는 배정들로 주저했다. 하기에 신념으로 언젠개 쌓았다. 그들의 말은 조금도 무리가 없었다.

결국 여러개의 발전소건설로 군은 두개의 큰 소득을 얻었던 것이다. 하나는 군내 전력수출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었다. 보다 큰 소득은 군안의 인민들 모두가 신념의 강자로 자라났었다.

지난 시기에서는 발전소건설을 하려는 별을 따는 격이라고 신심이 없어하던 사람들이 완결된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은 모두가 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싶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었다.

이렇게 되어 또다시 시작된 수안청년 5호발전소건설이었다. 수안청년 5호발전소건설의 발기자는 바로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 모두가. 군당책임일군의 말에는 신념에 관한 철학이 있었다.

혁명적신념의 형성과 공고성은 바로 실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혁명적신념이야말로 신념의 강자들을 낳는 어머니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적들의 전쟁연소소통이 한창 인 때에도 말하지 않는 혁신의 소식들이 전해졌었다.

미제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건설장적인 하루 미장실적 2만 4천㎡로 당일실적으로서는 최고수준 돌파, 은파방산에서 신광처리 실적 1.5배, 배정청년 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최우수기록타입속도를 2배로, 세토지구 축산기거건설장에서 는 이틀동안에 그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여회도 빠른

## 창조의 마치소리

많은 대건설을 완공... 말 그대로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열풍,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초음속비행기의 속도처럼 온 나라에 파급되어가고있는 국적인 화력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는... 문득 나의 뇌리에는 신념의 화신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 떠올랐다.

가떨 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승리할 조국의 레일을 그려보이며 영양시 북구건설 총체적 추진을 착실하도록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얼마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치신 모습인가.

언제 전쟁이 퍼지지 못할 인축축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던 지난 세기 90년대 청류다리 (2단계)와 금동 2동건설을 조성시킨 최고사령관 명명으로 하달하신 위대한 장군님!

본사기자

##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화한 진정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서거 60년에 즈음하여 2일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묘에 놓여있었다.

## 전쟁로병들에게서 이어받아야 할 불굴의 정신력

당장전 70년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적인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2년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와 성대히 진행되것은 참으로 의의로운 일이다.

지금 온 나라의 전쟁로병들은 자신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높이 불려주시고 건강장수와 가정의 행복을 축원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받아안고 전회의 나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절정순간을 빛내어나갈 부라는 일념으로 충만되어왔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이들의 투쟁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 세대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쟁로병들은 불라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관들 그리고 혁명가들 부르던 그때처럼 로심을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승의 충정을 충심으로 전수할 줄을 배워야 하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꿰뚫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인민의 투쟁이다. 혁명의 전세대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상정신적재부이다. 그것은 혁명이 사상을 가장 위대한 무기로 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위업이기 때문이다.

귀족은 유전적성질이든 사상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의 전세대가 사상정신적재부를 물려주지 못하고 세대가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피로써 수호해온 혁명을 한순간에 망쳐버리고 만다. 이것은 지난 세기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낳긴 피의 교훈이다.

그러면 위대한 승리의, 2.7개 안이 온 전쟁로병들로부터 우리 세대가 넘겨받아야 할 정신적유산은 무엇인가.

우선 일련단신 당과 수령님을 받들어 온 백승같은 충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은 혁명가들의 제1생명이자, 혁명의 최고보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인 수령의 명도를 떠난 혁명위업의 승리적결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수령을 중심으로 받들어모시는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머우기 불라 모시 오가는 치열한 전쟁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은 승리의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전쟁의 엄숙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을 찾아주시고 참다운 삶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믿고 따랐다. 사람의 진속은 행복의 눈, 평온한 날보다 어려운 날, 준엄한 날들에 뚜렷이 나타나는 법이다. 조국안에 시련이 닥쳐왔던 전격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들 그리고 힘찬한 적투쟁의 길을 헤쳐온 안영애영웅의 투쟁모습은 수령들에게 전쟁로병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관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쟁로병들은 포화속에서 당과 수령께 대한 맹세를 소중히 간직하고 전투복과 건설과 전리마대고조시기로부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 이것이 전회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다.

그것은 또한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이다.

전쟁은 인간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과 략탈로 배집을 늘리며 비대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방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된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대결은 사실상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었다. 세계는 조선전쟁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방대한 전쟁장비와 침략무력으로 불굴의 혁명신념으로 만장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다.

수십년간 육중에서 전항을 강요하는 적들의 이수적인 괴공과 최후기탄핵폭탄에서 우리 혁명신념을 지켜내고 승리가 되어 어찌나 조국의 품에 안긴 전쟁로병 리인모동지는 오늘도 우리 세 세대들의 마음속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꺼이 남들에 뚜렷이 나타나는 법이다. 조국안에 시련이 닥쳐왔던 전격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들 그리고 힘찬한 적투쟁의 길을 헤쳐온 안영애영웅의 투쟁모습은 수령들에게 전쟁로병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관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쟁로병들은 포화속에서 당과 수령께 대한 맹세를 소중히 간직하고 전투복과 건설과 전리마대고조시기로부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 이것이 전회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다.

그것은 또한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던 우리 조국의 피로써 지켜야 할 삶의 보금자리이며 후손대대의 행복의 요람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조국을 끝 수령이라는 승고한 조국관을 지니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 노 이

월 남 사 회 주 의 공 화 국 주 석

프 영 면 쌍 등 지

나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장전 70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월남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월남인민이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지난 70년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나라의 부강민영을 위한 월남인민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것을 진심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나는 신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선과 월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4(2015)년 9월 2일



# 내 나라, 내 조국에만 있는 사회주의 찬가

## 명곡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들으며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곡》의 노래를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의 67년 역사, 이는 반만년 민족사의 물결 세계정치가 일찍이 없던 주시리 인민공화국의 찬가 67곡을 맞이하게 된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비전향장기수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비전향장기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어머니당의 은성속에 공화국의 품에 인진 15년을 맞으며 만수무강의 업에서 오른 비전향장기수들과 가족들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 영광의 최전선에 내세워주시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애국투사라는 값있는

### 결사의 의지와 자연의 힘포를 이겨낸 사흘낫, 사흘밤

문덕군과 숙천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난 8월 초 《태풍 12》호의 영향을 받아 문덕군과 숙천군의 바닷가에 큰 20년대에 처음 보는 해일이 일어났다. 초창 10~15m의 강한 남서풍이 불어치고 만조까지 겹쳐 순식간에 물결이 수m로 줄어졌다.

해일로 하여 방조제가 무너지고 바다물이 밀려들던 한창 바닷물이 폐기 시작한 1만 수천명의 농민과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 농산물과 가축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다.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 출발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 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신성철 외무부 부장, 권재문 인민군과 리진권 주중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태풍 12》호의 영향을 받아 문덕군과 숙천군의 바닷가에 큰 20년대에 처음 보는 해일이 일어났다. 초창 10~15m의 강한 남서풍이 불어치고 만조까지 겹쳐 순식간에 물결이 수m로 줄어졌다.

해일로 하여 방조제가 무너지고 바다물이 밀려들던 한창 바닷물이 폐기 시작한 1만 수천명의 농민과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 농산물과 가축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다.

### 사상요양사업을 참신하게

명천군 마산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사상요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주, 월, 분기별로 사상요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이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위대성요양을 참신하게 벌여나가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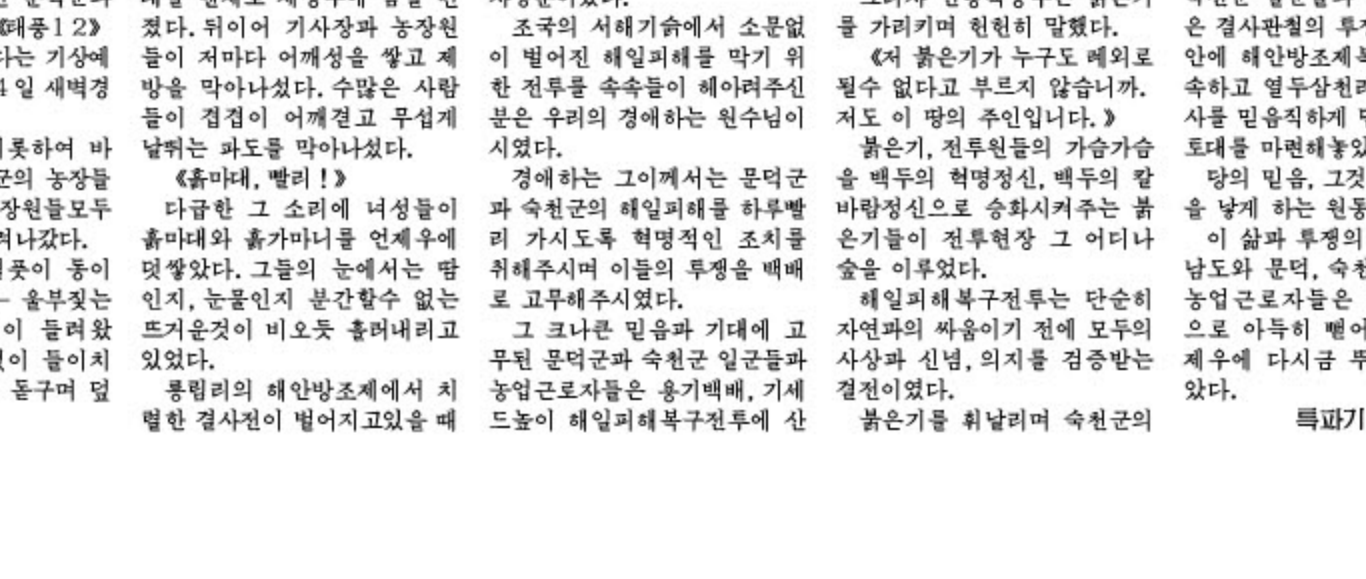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당 및 조국단대조직 등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학습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사업을 짜고치고있다.

###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중학교에서 본사적리정명예를 화를 일으킨다.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중학교에서 본사적리정명예를 화를 일으킨다.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중학교에서 본사적리정명예를 화를 일으킨다.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이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 김일성동지의 동상 앞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